

지향계와 공간정향성의 관계양상 연구

A Study on the Aspects of Spatial Orientation and Intentional System

Author 서준호 Suh, June Ho / 정희원, 동양미래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a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al system and spatial orientation, and with space model in the human world to orient yourself is to present the basic spatial concepts. This is composed of parts of intentional system and spatial orientation on the research. Through the study of intention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orientation with Daniel Dennett's, it suggests the space-model that composed with aspects of intentionality and spatial elements. With space-model and judgement of spatial types, it makes relationship confirm between them. Through this process, follow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First, intentional stance of space is the key for building knowledge and memories about space, and for identifying external environment images which are experienced in the senses of human. Second, changing the meaning from space to place makes horizons of space broader and creates a new sense of space with put the intentional orientation into the space. Third, this study can make confirm what the aspect of the space-schema-elements for orientation in space, serves as the presentation elements. This study leaps an old-view of the architectural customs about spatial orientation, and creates an opportunity to refine the newer concept of space. This concept of space is a basic essential for 'site-selection' and 'spot-catching' as an intentional system for spatial orientation an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human beings in the world of his own orientation to the concept of space.

Keywords 지향계, 공간정향성, 공간 스키마, 대니얼 데닛
Intentional System, Spatial Orientation, Spatial Schema, Daniel Dennet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장소'와 '장소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함께 인간의 감성 혹은 인간이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 방법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지과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마음'과 관련된 연구와 '뇌생체학', '유전자학' 등을 수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마음'과 진화론적 생태학 등에 기반을 둔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의 지향적 자세(intentional stance)와 관련하여 불 때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주거론¹⁾은 물론이고, '장소의 혼'을 주창한 노베르그 슐츠(Norberg Schulz)나 이-푸투안(Yi-Fu Tuan)의 공간개념, 나아가서 케빈 린치(Kevin Lynch)의 공간 인

지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 마케팅', '장소 이미지' 등의 인간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한 마케팅 개념 등이 이런 진화적인 인간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는 관념적이고 과학적인 공간으로 이미지와 가치를 가지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장소인지'와 '장소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공간 개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슐츠는 그의 책 '실존·공간·건축'에서 T. 파슨스(Talcott Parsons)의 '공간에서의 행위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지향과 정위의 구조와 그에 따른 과정과 배열로 이루어진다.'²⁾고 인용하면서 지향과 정위에 대한 개념을 인간 실존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간이란 특별한 종류의 정위가 아니라 어떠한 정위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며 인간이 스스로의 지향을 성취시키려면 공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³⁾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지향성

1) 하이데거는 '짓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 장소와 공간과의 관계는 주거에 존재한다', '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세울 수 있다', '주거란 실존의 본질적인 특절이다'라고 자신의 주거론(dwelling)에 대한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

2) Norberg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p.8

3) Ibid., p.8

과 공간 정위와 정향에 대한 개념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건축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지향된 생활 형태를 환경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은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장소 선택'과 '자리, 방향잡기'에 대해 지향계로서의 공간정향성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 공간 모형을 통하여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 개념을 재해석하고 제시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지향계와 공간정향성에 대한 연구와 공간 모형 제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향성의 근거가 되는 지향계를 과학철학자 다니엘 데닛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향성의 지향계적 양상과 표현 요소로 구성된 공간 모형을 제시한다. 모형을 근거로 정향적 공간 유형의 판단을 통해 지향계 내 공간정향성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한다.

첫째, 인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데닛의 지향계 이론과 지향적 공간정향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정향성의 지향계적 양상과 공간 구성 요소를 공간 모형의 근거로 제시한다. 둘째, 피아제와 술츠의 공간 스키마 개념과 공간 표현 요소가 적용된 지향적 정향 공간 모형을 제시하고, 셋째, 공간 모형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정향적 공간 유형을 설명·분석하여 지향계로서 공간정향성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한다.

2. 지향계와 공간정향성

지향성에 대한 현대철학에서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950년대에 인지혁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의 이른바 전통적 입장에서의 지향성에 대한 이론들과 50년대 이후의 인지과학과 심리 철학에서 발달한 지향성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공간과 거주 등에 관한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공간 개념을 지향성 내에서 다루고자 함이므로 전통적 측면의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지향성보다는 인지 과학 철학적 측면에서의 지향성, 특히 다니엘 데닛의 '지향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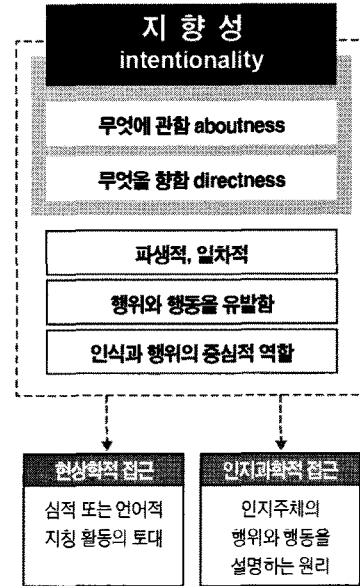
2.1. 지향성의 기본 개념

지향성이란⁵⁾, 일반적으로 '(무엇에)관함(aboutness)' 혹

4) Ibid., p.88

5) 지향성의 정의는 초기 브렌타노의 개념으로부터 현재의 인지·과학 철학자들의 의견의 공통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시대마다 지향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브렌타노 이전과 이후의 개념의 차이를 뒤에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브렌타노 이후의 철학자들, 특

은 '(무엇에) 정향함(directedness)'라는 특수한 심적 속성이나 기능 또는 능력을 정신의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 부른다.⁶⁾ 지향성은 정신뿐만 아니라 언어가 지닌 특성이기도 하며 파생적이고 일차적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지향적 상태의 소유자의 행위와 행동을 일으키며, 인식과 행위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림 1> 지향성의 기본 개념

이러한 지향성은 시대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심적 또는 언어적 지칭 활동의 토대'로 보는 현상학적 접근과 '인지 주체의 행위와 행동을 설명하는 원리'로 간주하는 인지과학, 심리 철학적 접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⁷⁾

2.2. 다니엘 데닛의 지향계와 지향적 자세

(1) 지향성과 지향계

다니엘 데닛에게 지향계(intentional system)란 곧 철학에서의 지향성을 말한다. 데닛은 그의 책 '마음의 진화'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지향성은 그저 겨냥(aboutness)이다. 자기 아닌 다른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겨냥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존재는 지향성을 드러낸다.'⁸⁾ 라고 하면서 단순한 철학에서의 지향성 개념을 진화적 관점에서 확장한 지향계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킨다. 데닛은 '지향계란 그 행동이 지향적 자세에 의해서 예측되고 규명되는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 지향적 자세의 핵심은 어떤 존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그 존재를 행위자로

히 다니엘 데닛을 중심으로 한 인지·과학 철학자들의 지향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6) 김영진, 지향성에 대한 개념적 오해들, 인문학연구, Vol.11, 2007, p.227

7) 김영진, 지향성 이론 정초의 시각에서 보는 브렌타노, 철학탐구 제 23집, 2008, p.40

8) Daniel Dennett, 마음의 진화, 이희재 역, 사이언스 북스, 1996, p.72

예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지향적 자세는 스스로의 믿음과 욕구를 고려하여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전제 아래 이해하는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인다.⁹⁾

지향계는 감응력(sensitivity)과 감지력(sentience)을 지닌 인간의 뇌 세포 하나하나에 담긴 정보와 같은 것으로 의식의 개입 없이 감응력 만으로도 지향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응력과 감지력의 능력의 차이는 신경 세포의 배치, 즉 신경 네트워크의 형성 유무로 고등 생물과 자기 복제 거대 분자로서의 하등 생물의 차이를 이룬다고도 설명한다.

(2) 본래적 지향성과 파생적 지향성

데닛은 철학자 존 설(John Searle)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향성은 본래적(intrinsic)인 것과 파생적(derived)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한다.¹⁰⁾ 본래적 지향성은 인간이 지닌 생각, 믿음, 욕망, 의도의 겨냥으로 파생적 지향성의 원천이 된다. 인공 표상물의 파생적 지향성은 로봇 등을 포함한 인공물에 지향적 성격을 부여하고 지향적 자세로 사물을 대하는 것으로 밖에서 주입된 지향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생적 지향성은 본래적 지향성을 근거로 무생물에게서도 지향성을 읽어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격화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공 표상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활동 안에서 그것이 맡는 역할 덕분에 파생적 지향성을 갖게 된다.

(3) 마음의 형성 단계로서의 모델, '생산과 검증의 탑'

데닛은 다윈주의의 자연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마음의 형성 단계를 추상화한 모델인 이른바 '생산과 검증의 탑(the tower of Generate-and-Test)'을 제시한다. 다양한 유기체 후보군 중에서 현실 검증을 거쳐 가장 우수한 설계안으로 살아남는 '다윈 생물',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기, 즉 강화에 의해 선택되는 행동이 나타나고 다음부터는 강화된 행동을 바로 선택하는 '스키너 생물', 후보 행위군을 검토하여 선택하는 내부 환경이 있는 '포퍼 생물', 다른 존재들이 발명, 개선, 전수한 마음의 도구를 식별 가능한 표지를 사용한 반성의 탑을 외부 환경에 뇌와 마음의 경계선과 상관없이 쌓아 올려 활용하는 '그레고리 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생물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모델이 동시에 네트워크처럼 작동되는 모델이며 특히 지향계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그레고리 모델은 자신의 지향계를 외부 환경을 이용해 외부의 무생물체 혹은 특정한 표식(이름, 표시불이기)을 사용한 대상체에 지향계를 부려놓는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는 지향계가 자신의 내부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기반으로 지향계를 확장한

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2.3. 지향계로서의 공간정향성

(1) 본래적 지향성의 내재

공간정향성의 지향적 성격은 지향성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무엇인가를 향함(directness)'에서 온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 이전에 사람이 어떤 곳을 겨냥해 향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정향성은 '향해 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그의 책 '짓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풍가서 자리 잡기'와 같은 것이다. 하이데거는 '위치할 지점을 정하는 순간'에 바로 장소의 감각과 공간의 구체화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면서 작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을 위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¹¹⁾ 일반적으로 정위(定位)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부분으로 특정 방향을 지향하는 방향성에 관한 내용을 가리키며, 딱딱한 쪽이 아닌 탁 트인 전망 쪽을 향한다거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향하는 주광성(走光性), 혹은 새끼들이 어미를 향하는 주모성(走母性)등이 원시적인 지향적 정향성에 해당된다.

(2) 지향적 외부환경의 필요

또한, 공간에서의 정향성이라는 것은 데닛의 그레고리 모델에서처럼 외부 환경에 우리의 지향적 정보를 부려놓고, 그 환경을 근거로 마음의 도구, 즉 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우리들 내부로 전송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는 정위감으로서의 '방향잡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공간의 기능적인 배치, 즉 자리 잡기와 그 외부 환경에 맞게 장소의 영역을 한정하는 것까지 이른다.

술츠는 정향이라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의 역동적인 균형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피아제(J. Piaget) 역시 스키마(schema)를 언급하면서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 정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정향적인 특성이 반드시 인간 외부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데닛의 그레고리 모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4. 소결

지향성은 목적을 가진 정신적 행동 혹은 심리적 현상이며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 주체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적 관계의 확립에 있다. 지향적 정향성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인식적 행위이다. 이는 외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향계를 확장하는 모델로서, 그리고 감응력과 감지력으로 읽어내야 할 지향계적 공간 내에서 가설

9) Ibid., pp.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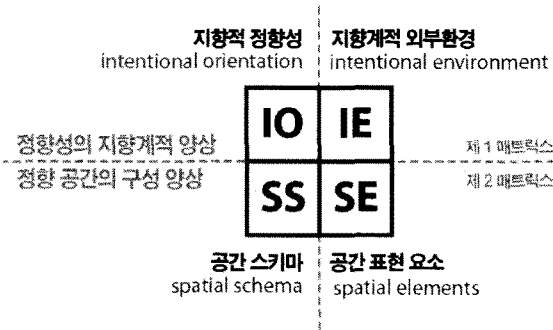
10) Ibid., pp.95-96

11) Adam Sharr, 건축과 철학-하이데거, 장정제 외 역, 스페이스타임, 2010, p.65

검증이나 의사결정의 모델로서의 공간정향성을 설명하는 표현형이 된다. 이에 정향적 공간은 지향적 성격을 내재하며 이는 정향성의 지향계적 양상과 함께 정향적 공간을 구성하는 표현 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3. 지향적 정향공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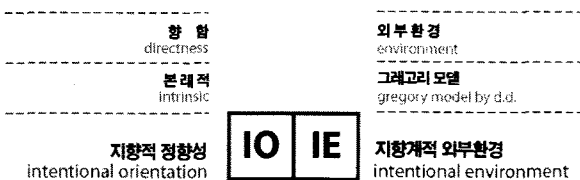
지향계와 공간정향성의 관계에 대한 인지철학적 접근으로서 대니얼 데닛의 외부환경 모델과 본래적 지향성을 내재하고 있는 정향성의 지향계적 양상과, 공간 스키마와 공간 표현 요소로 이뤄진 정향 공간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의 매트릭스 합으로 지향적 정향 공간 모형을 제시한다. 공간에서의 지향계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제 1 매트릭스와 그를 통한 지향적 공간의 표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제 2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림 2> 지향적 정향 공간의 모형

3.1. 제 1 매트릭스 : 정향성의 지향계적 양상

앞 장에서 살펴 본 정향 공간의 지향적 성질의 내재와 대니얼 데닛의 그레고리 모형을 바탕으로 한 지향계적 외부환경이라는 관계 양상은 지향적 정향 공간의 모형을 이루는 대진제이자 매트릭스의 출발점이 된다. 지향성의 본래적 요소인 '향함'을 기본 요소로 내재하고 있는 정향성의 양상과 대니얼 데닛의 마음과 뇌의 작동 모델 중 최상위층 그레고리 모델을 근거로 하는 지향계적 외부환경 양상은 지향적 정향성(intentional orientation, IO)과 지향계적 외부환경(intentional environment, IE)이라는 두 부분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림 3> 정향성의 지향계적 양상

3.2. 제 2 매트릭스 : 정향 공간의 구성 양상

지향계와 공간정향성 간의 관계 양상을 피아제의 공간 스키마 개념과, 이를 적용한 실존적 공간의 정향·정위감의 표현, 그리고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간 모형을 위한 기본 요소를 파악하고 지향적 정향 공간의 유형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 기준을 가지고자 한다.



<그림 4> 정향 공간의 구성 양상

(1) 공간 스키마(spatial schema, SS)

지향계로서의 공간정향성에 대한 내용은 피아제의 이론에 의지하고 있다. 그는 공간에서의 지향성을 공간 스키마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실존적 공간이란 비교적 안정된 지각적 스키마의 체계, 즉 환경의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 '실존적 공간은 수많은 현상의 유사성으로부터 추상화되어진 하나의 일반화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¹²⁾고 설명하면서 '인식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인식한 대상을 보다 포괄적인 전체인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특정한 장소와 인식된 외부환경의 대상을 연결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피아제의 지각심리학적 결과와 게슈탈트 심리학의 관점을 연결하여 실존적 정향 공간의 스키마적 요소들 즉, '중심', '방향', '구역'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인간이 스스로가 정향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³⁾ 그 표현 양상으로서 중심과 장소, 방향과 통로, 구역과 영역을 함께 제시한다.

(2) 공간 표현 요소(spatial elements, SE)

1) 중심과 장소

우리 자신을 정위시키고 환경을 소유하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한 '중심'을 슬츠는 '인간의 공간은 주체를 축으로 하여 중심화 되어 있다'¹⁴⁾라고 말한다. 모든 중심은 행위의 장소, 즉 특별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실존적 공간은 대부분 공공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근접성, 중심성, 폐합성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은 동시에 작용하여

12) Norberg 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2, p.28
 13) Norberg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p.33
 14) Ibid., p.34

보다 구체적인 실존적 개념. 즉 장소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2) 방향과 통로

예로부터 공간에서의 방향 잡기는 인간의 행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요인, 즉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의미의 동방(東方, Orient)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향(orientation)의 의미 기원이 된다.

수직성은 공간의 신성한 차원으로 설명되며 바슐라르는 주거의 특질을 수직성과 구심성으로 정의하기도 했다.¹⁵⁾ 슬츠는 가장 단순한 실존적 공간의 모델은 평면에 수직축을 세운 것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이 환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하며, 자신의 목적과 환경의 이미지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통로를 지나는 것을 의미 한다'¹⁶⁾라고 말했다. 통로는 어떤 목표에 이르기까지 따르게 되는 방향으로, 원점과 목적지가 분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통로는 보다 강한 동일성을 갖고 도시를 하나로 결합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관찰자가 그 통로를 지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주었다고 케빈 린치는 설명한다.¹⁷⁾

3) 구역과 영역

영역이란 어떤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지 못한 땅(地, ground)인데, 바로 이런 땅 위에서 장소와 통로가 비교적 명백한 형상(圖, figure)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영역은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영역은 인간의 활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장소를 소유한다는 것은 통로와 장소에 의해 환경을 영역으로 구조화해 감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인의 정주지를 방위축에 기준하여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¹⁸⁾

4) 표현 요소 간 상호작용

어떤 장소의 특성은 그 장소와 그것을 둘러싼 주변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지향점이 없는 통로는 무의미하다는 것과 영역은 그다지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합시키는 땅(地)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공간적 요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다. 특별히 농경 문명은 장소에 의해 정위되었으며 구심적으로 닫힌 영역 안에서 주위를 둘러싸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¹⁹⁾

방향성은 강하게 안과 밖을 연결하는 데, 닫힌 형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방향성이 도입

되게 된다. 즉, 장소는 외부로 확장되고 동시에 그 외부가 경계를 통과함으로써 전이대(轉移帶, transition area)를 형성하게 된다. 장소는 자연의 문맥을 이루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방위가 잡혀있으며 어느 정도 균일한 기하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²⁰⁾

4. 지향적 정향공간의 표현 특성

3장에서 제시한 지향적 정향 공간 모형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공간을 모형을 통해 설명하여 지향적 정향 공간의 표현 양상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

대상 공간은 인간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실존적 층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부터 장소, 그리고 도시 공간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스키마로 구축되는 개인적 경험공간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경험과 의식의 표출로 이뤄지는 장소성의 실존(생활) 공간과 이미지로서 외부 환경을 종합하게 되며 이동을 전제로 한 정향 공간인 도시 공간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를 공간 모형 매트릭스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질 개념으로서 물리적 공간 현상을 파악하고, 공간적 지평을 넓혀주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1. 신체와 개인적 경험 공간(phenomenal space)

(1) 경험적 공간으로서의 정향성

공간을 인식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 경험적 관점은 가장 중요하다. 이-푸투안은 시각과 촉각의 공간화 기능들이 결합되면 본질적으로 비공간적인 이러한 감각들을 통해 세계의 공간적이고 기하학적인 특성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²¹⁾고 강조하면서 육식 동물의 코가 공간적으로 구조화된 세계, 그 중에서도 방향과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세계를 명백히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했다. 또한 소리 자체가 공간적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간적 환상은 음악 속에서 창조되며, 음악의 형식은 믿을만한 정향감(sense of orientation)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음악학자 게르하르트(Roberto Gerhard)는 '음악의 형식은 매순간마다 음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에 대한 의식은 사실 정향감이다'라고 하며 소리는 공간 인식을 넓혀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15)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선, 2003, 제1장 부분

16) Norberg Schulz, op.cit., p.42

17)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p.54

18) Norberg Schulz, op.cit., p.46

19) Norberg Schulz, op.cit., pp.4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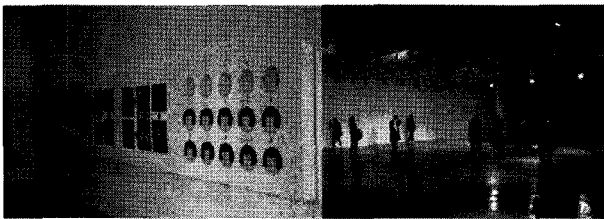
20) O.F. Bollnow, Mensch und Raum, 1963, p.100

21) Yi-Fu tuan, 공간과 장소, 구동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1995, p.30

(2) 신체와 공간적 가치

인간 신체의 모양과 자세는 주위의 공간을 수직-수평과 상·하층뿐만 아니라 전·후방, 좌·우측을 정하게 된다. 인간이 수직으로 앉게 되면서 새로운 정향성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평이 확장되고, 이는 수직축과 수평축이 가지는 공간적 가치의 연결로도 설명되는데 이는 모두 신체가 가지는 정향과 관련이 있다. 음(陰)과 양(陽)이라는 이원적 분류에서의 좌측과 우측, 그리고 통치자의 위치를 남쪽과 태양 쪽으로 향하게 하며,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은 남성을 상징하며 좌측을, 태양이 지는 장소인 서쪽은 여성이자 우측을 나타낸다.

(3) 예페 하인(Jeppe Hein, 1974-)의 '보이지 않는 미로 (Invisible Labyrinth,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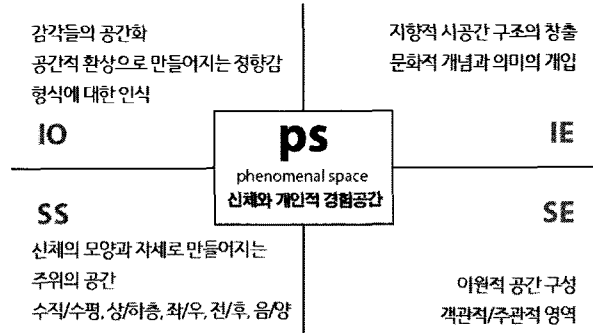


<그림 5> 예페 하인, '보이지 않는 미로(2008)'

예페 하인은 덴마크의 설치 작가로 그의 작품 '보이지 않는 미로'는 신체 감각 기관을 통해 정향된 공간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작품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텅 빈 공간에 금속 재질의 헤드셋을 쓰고 진입하면 천장에 설치된 센서와 진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간의 구조를 알려준다. 이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감각적인 경험으로 방향과 거리,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을 인식 세계 속에 구축하는 것이다. 몸으로 익혀진 경험을 통해 비록 물질로 구축되지 않았지만 정향적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신체적 경험 공간을 표현했다.

(4) 신체와 개인적 경험공간의 특징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경험 공간의 성격과 예페 하인의 작품을 통해 그 특징을 종합해 보았다. 정향적 지향계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공간적 환상과 감각들의 공간화로 지향적 정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향적 시공간의 구조를 창출하며 외부 환경에 문화적 개념과 의미의 개입이 발생한다. 신체의 모양과 자세로 공간이 형성되며, 신체 주위의 공간, 특히 수직·수평 등의 방향감, 정위감 등이 부여되는 정향감을 가지게 된다. 객관적·주관적 영역 등이 이원적 공간 구분이 개인적 경험공간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 '신체와 개인적 경험 공간'의 특성

4.2. 장소로서의 실존 공간(existential space)

(1) 장소의 본질로서 지향적 공간

장소는 행위와 의도(intentionality, 지향성)의 중심이며 우리가 실존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초점이다. 장소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되는 의도의 구조에 통합된다. 또한 장소는 의도적으로 정의된 사물 또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맥이나 배경이고 혹은 장소 그 자체로도 의도의 대상, 곧 지향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소에는 우리의 의도(지향)·태도·목적과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²²⁾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하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지향성에 장소의 본질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성은 경험의 방향만을 제시해 줄 뿐이며 실질적인 경험은 인간의 감각과 목적, 과거의 경험과 연상 등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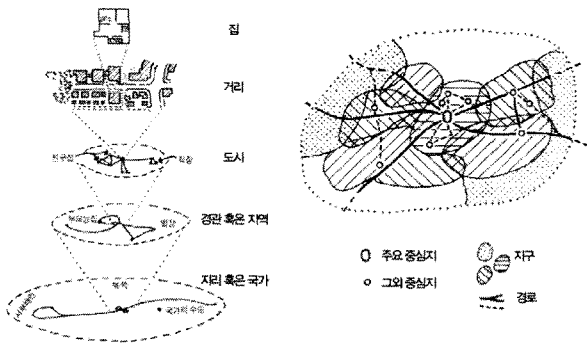
(2) 새로운 공간에 이름 붙이기

지리적 공간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적인 연계의 반영이. 지리적으로 새로운 공간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공간이 인간을 위한 것으로 전환된다. 이는 대니얼 데닛의 그레고리 모델 특징인 외부환경에 특정한 표식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장소에 이름 붙이기, 지도, 건축물의 좌향(座向) 등이 공간의 패턴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름 없는 공간은 혼돈스럽고, 방향 감각이 없고 두렵기까지 하다.²³⁾ 케빈 린치 역시 북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낯선 땅에 유럽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붙인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황무지가 인간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²⁴⁾

(3) 노베르그 숄츠의 실존 공간 구조 분석(1971)²⁵⁾

실존 공간에서 장소는 의미의 중심 또는 의도와 목적의 초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숄츠는 도시 경관 구조의

22) Ibid., pp.102-104
 23) Ibid., pp.54-55
 24) Kevin Lynch, op. cit., p.41
 25) E. Ralph, op. cit., pp.6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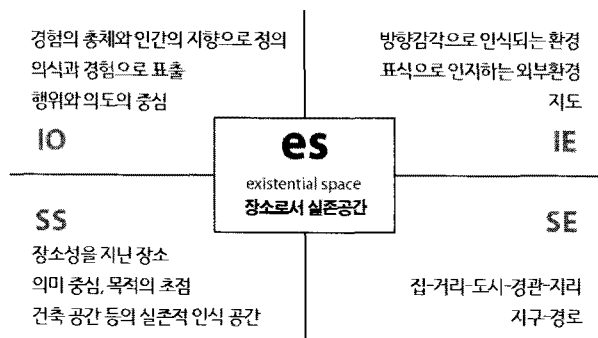


<그림 7> 노베르그 슈츠, 실존 공간 구조 분석(1971)

연구를 언급하면서 인간은 도시, 마을, 집을 건축하고 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의미의 패턴과 구조를 만든다고 하였다. 특별히 실존 공간에서의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에 대해서는 수직 구조의 수준들로서, 집-거리-도시-경관-지역 등을, 수평 구조에서는 지구(district)와 경로, 그리고 장소를 각각의 표현 요소로 선정하였다. 슈츠의 실존 공간 분석은 의미가 부여되는 수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실존 공간의 의미가 단순히 개인이 지각하는 공간들이 갖는 의미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의 의미이며 집을 짓고 경관을 만들고 길을 내고 하는 등의 지향성을 지닌 정향적 공간을 장소로 만들어가는 의미 작업이다.

(4) 장소로서 실존 공간의 특징

인간은 공간을 장소화하기 위해 경험의 총체와 인간의 지향으로 재 정의한다. 이는 의식과 경험의 표출이며 행위와 의도의 중심이기도 하다. 공간이 장소성을 지녀 장소가 된다. 특별히 외부환경에 있어서 그것은 방향감각으로 인식되어 그것에 표식을 부여하고 이는 곧 지표로서의 지도를 만들게 된다. 장소는 인간에게 의미의 중심이며 목적의 초점이 되는 공간으로 형성되며, 건축 공간 등을 통해 실존적 인식 공간으로 구축된다. 실존 공간은 곧 생활공간으로, 집-거리-경관-지리 등의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림 8> '장소로서의 실존 공간'의 특성

4.3. 이미지로서의 도시 공간(city space)

(1) 정향적 공간과 도시

환경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은 목적이 있는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린치는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동하는 유기체가 주위의 상황 속에서 정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서 생긴다.'라고 지향적 정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²⁶⁾ 이는 앞서 언급했던 이동성이라는 구조화된 환경의 이미지, 즉 특수한 정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위를 포함하고 있는 실존적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도시 이미지 표현의 5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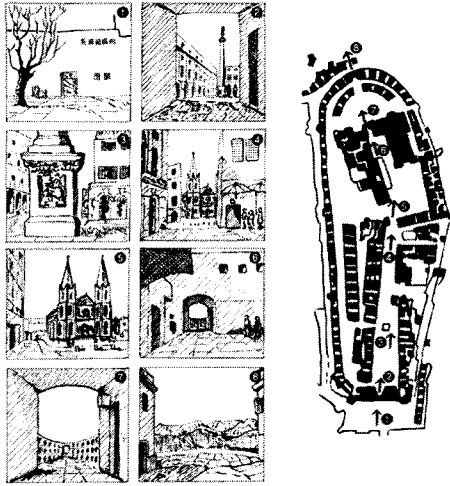
케빈 린치의 도시이미지 5개 요소로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결절점(node), 구역(district), 그리고 랜드마크(landmark)를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공간에서의 방향잡기'와 환경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원점과 목적지가 분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통로가 보다 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도시를 하나로 결합하는데 도움을 주며, 관찰자가 그 통로를 지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주었다고 밝혔다.²⁷⁾ 가장자리란 통로로 여겨지지 않는 선적인 요소로 보통 그것들은 두 종류의 구역이 이루는 경계선이며, 결절점이란 관찰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초점이며, 통로로서의 접합점 또는 어떤 특징을 갖는 집합점이다.²⁸⁾ 지역은 '관찰자가 마음속으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이덴티티를 확인시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구역'²⁹⁾으로 정의하고 '관찰자에게는 외부의 것으로 여겨지는 표준점'³⁰⁾으로서 랜드마크를 설명한다.

(3) 고든 쿨렌(Gordon Cullen)의 도시경관연구(1971)³¹⁾

양케트를 통해 지도를 작성하는 멘탈 매핑의 방법을 이용했던 린치와는 달리 고든 쿨렌은 보행자가 도시의 거리에서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분석하고 연속적인 시계(視界)를 통해 장소와 중심들, 장소들 안에 있는 내용물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케빈 린치의 접근은 지나치게 멘탈 이미지로 접근해 전체 공간에 대한 왜곡이 있었지만 고든 쿨렌의 연구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정보 간의 함수 작용을 이용해 도시 공간의 의미 있는 요소를 특성화하고 공간의 구조적 요소를 제시해주는 연구였다. <그림 9>에서처럼 쿨렌은 도시 공간을 시퀀스적 분석과 시각적인 이미지 분석을 통해 린치가 5개 도시 이미지로

26) Kevin Lynch, op. cit., p.147
 27) Ibid., p.47, p.54
 28) Ibid., p.72
 29) Ibid., p.47
 30) Ibid., p.78
 31) E. Ralph, op. cit., pp.5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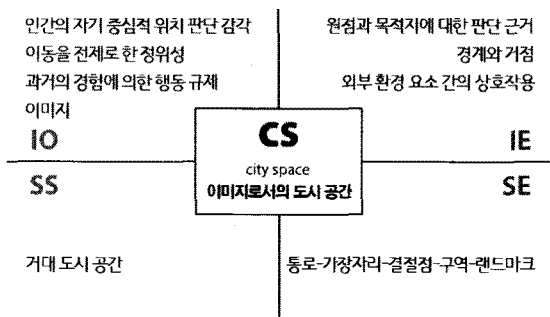


<그림 9> 고든 쿨렌(1971), 연속 시계로서 도시를 바라본 실존 공간

구분해 놓은 요소를 입면화시켜 인식되는 이미지의 연속으로 도시 공간을 분석하였다. 그것은 공간에서의 개구부, 통로, 가장자리 등을 통과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까지 연결되는 공간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실존적 공간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도시를 표현하는 이미지 요소들이 상호작용 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이동성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이미지로서의 도시 공간의 특징

도시공간은 이동을 전제로 한 정위성을 가지는 지향적 정향성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위치 판단의 감각을 표현한 것이다. 경계와 거점 등의 외부 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 환경이 이미지 적으로 구축된다.



<그림 10> '이미지로서의 도시 공간'의 특징

4.4. 종합

앞 절에서 실존적 층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 정향 공간에서 각각의 양상들을 공간 모형과 매트릭스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의 종합은 <표 1>과 같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경험 공간은 인식과 조직의 경험적 공간으로 신체를 중심으로 한 정위감을 중심으로 공간을 형성하며, 지향적 시공간 구조를 신체 감각 중심의 인지요소와 시간과 공간축의 개념축을 중심으로 공간을

창출한다.

장소로서의 실존 생활 공간은 행위와 지향성의 중심으로 인식된다. 수평·수직적인 공간 구조를 강조하며 외부 환경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여 원초적이며 인지적이고 실존적인 건축 공간 등으로 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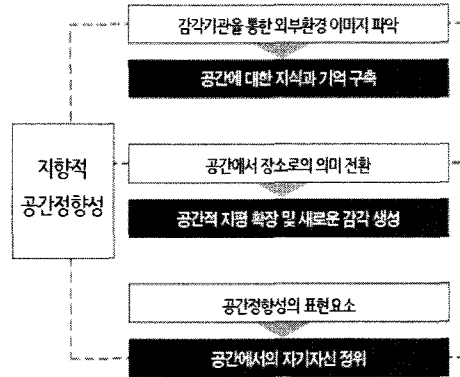
이미지로서의 도시 공간은 그 자체를 정향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정향감을 부여하는 5개의 도시 이미지와 요소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향적 정향 공간을 만든다.

<표 1> 분석의 종합

| 구분 | 지향계 정향성(IO) + 지향계적 외부환경(E) | |
|----------------|---|---|
| | 공간 스키마(SS) | 공간 표현 요소(SE) |
| 개인 경험 공간 (PS) | - 인식 및 조직의 경험적 공간 - 신체를 중심으로 한 정위감 - 지향적 시공간 구조 창출 | -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인간 신체 감각 중심의 인지요소 - 시간, 공간축 등 개념 요소 |
| 장소 실존 공간 (ES) | - 장소를 행위와 지향성의 중심으로 인식 - 장소의 수평적·수직적 공간 구조 강조 - '외부환경에 표식 붙이기' 등의 외부 환경 이미지에 대한 인식 강조 | - 원초, 시각, 실존, 인지, 건축 공간 등의 공간형태 - 수평·수직 구조 - 이름 붙여 구별하기 등 |
| 이미지 도시 공간 (CS) | - 도시 자체를 정향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정향감을 부여하는 5개의 도시이미지 요소 제시 | - 통로, 가장자리, 결절점, 구역, 랜드마크 - 5개 요소의 상호관계 |

5. 결론

지향적 정향성의 공간 스키마와 실존적 공간으로서의 표현 요소 등을 적용한 공간 모형을 기준으로 구체화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공간에서 지향적 공간정향성의 의미

첫째, 인간의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경험된 외부 환경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공간에 대한 지식과 기억을 구축하는 데에는 인간의 공간에 대한 지향적 자세가 그 중심이자 본질이 된다.

둘째,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표현된 공간 요소 등은 보다 추상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공간에 대한 기억, 혹은 공간에서 장소로의 의미 전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공간이나 신화적 공간으로서의 개념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지평을 넓혀 주고, 공간을 다룸에 있어 지향적 정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여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생성한다.

셋째, 모형으로 제시했던 정향감 표현을 위한 공간 요소의 양상은 그것이 공간 스키마를 정향하기 위한 공간에서의 표현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향성은 그것이 실존적인 공간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공간 정향감의 표현 요소로 실제화, 건축 공간화 된다. 그것은 공간 스키마라는 지향적 정향감과 지각된 환경 이미지로 나타나며, 중심과 장소, 방향과 통로, 그리고 구역과 영역 등의 현실적인 공간 요소들로 표현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정향성(directness)을 본래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지향계가 공간 정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정향성을 단순히 건축적인 관습으로 보는 관점을 뛰어넘어 보다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간의 '장소선택'과 '자리, 방향잡기'에 대해 지향계로서의 공간정향성에 대한 관계 정립과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 개념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2. Norberg 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2
3. Adam Sharr, 건축과 철학-하이데거, 장정제 외 역, 스페이스타임, 2010
4. Daniel Dennett, 마음의 진화, 이희재 역, 사이언스 북스, 1996
5. Edward Ra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 논형, 2005
6.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7. Norberg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8. Yi-Fu tuan, 공간과 장소, 구동회 외 역, 도서출판 대운, 1995
9. 김영진, 지향성에 대한 개념적 오해들, 인문학연구, Vol.11, 2007
10. 김영진, 지향성 이론 정초의 시각에서 보는 브렌타노, 철학탐구 제23집, 2008
11. 김영진, 마음의 지향성과 밀리칸의 고유기능 이론, 철학·사상·문화 Vol.2, 2008
12. 정성호, 지향성의 개념과 탐구방향, 철학 Vo.97 No.1, 2008

[논문접수 : 2011. 06. 27]

[1차 심사 : 2011. 07. 11]

[게재확정 : 2011. 08. 05]